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팀

- 은혜로운 호스피스병동 개원 열 돌 잔치를 마치고 -

변선주

성가롤로병원 호스피스팀 수녀

아름다운 광양만과 포스코와 여천공단이 아스라이 바라다 보이고 맑고 푸른 하늘이 손에 만질 듯 가깝게 느껴지는, 저희 성가롤로병원에서 가장 높고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호스피스병동! 병동 초입에 크고 작은 식물들이 한데 어울려 작은 숲을 이루며 저마다의 아름다운 자태로 오시는 분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의 장난에 고운 꽃과 예쁜 잎들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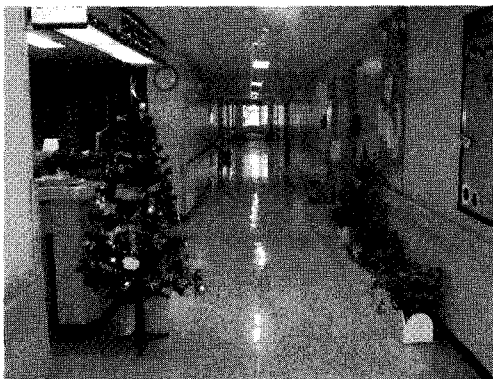
저희 호스피스병동은 성가롤로병원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지역 주민, 특히 더 이상 완치가 불가능한 암환자의 통증조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8년 11월 1일 5병상의 작은 씨앗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가끔은 병상이 비어서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타 파트로 파견근무를 나가기도 하고 혼자 접수실에서 문의전화를 받으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지내던 시간이 어제일 같은데 어느 사이 10년 세월이 흘러갔네요. 마지막 보탬이 아쉬워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남은 가족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가신 분들의 영원한 행복을 염원하며 정성스레 두 손을 모았던 시간들이 가슴 가득 아련한 그리움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엔 호스피스병동을 죽음의 장소로 여기고 기피하고 두려워하던 환자와 가족들. “저기는 죽을 사람만 간다.”는 풍문도 난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인식이 바뀌어 이제는 “편안한 곳, 아프지 않은 곳,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저희 호스피스병동에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보호자들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 있다는 것에 큰 위로와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대도시가 아니어서 그런지 인식의 속도도 그만큼 늦어지는 곳. 그러기에 더욱 교육과 간호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이곳에서 저희 호스피스 팀원 모두가 대상자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어린 돌봄, 열정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2002년에는 10병상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으로 더욱 뛰어난 운영과 돌봄을 목표로 하여 지역 주민과 팀원을 위한 규칙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도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5년~2008년 현재까지 복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말기 암 환자 지원사업”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장비, 프로그램, 환경조성과 임종실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환자와 가족이 더욱 “머물고 싶은 곳, 사랑을 느끼는 곳”으로 개선할 수 있어 얼마나 감



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 봅니다.

저희는 금년 10월 31일 호스피스 개원 열 돌을 맞이하여 초출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저희 호스피스병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자원봉사자들, 사별가족들이 한데 모여 함께한 시간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먼저 가신 이들의 영원한 천상행복을 기원하며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점심식사를 나누고, 제2부로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동영상 관람, 세미나 그리고 노래자랑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 몰래 닦는 눈물 그러나 강당을 나가면서는 활짝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손을 꼭 잡고 손등을 토닥여주시는 분들. 이러한 무언의 격려에 힘입어 저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호스피스 케어의 “프로”가 될 것을 다짐하며, 환자와 가족의 부름에 미소를 머금고 달려가 행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열배 백배의 소출을 기대하면서...

저희 호스피스병동이 열 살배기가 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모아 감사드립니다.



전.진.상 의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153-841)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 200-2
☎ 02)894-9312 <http://www.jeonjinsang.or.kr>

全 : 온전한 봉헌

眞 : 진실한 사랑

常 : 끊임없는 기쁨

전.진.상은 평신도 단체인 국제가톨릭 형제회 (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 -AFI)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의 기쁨을 내포하고 있다.

1996년 가정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여 2008년에는 10병상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개원하였다.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동 내용〉

1. 외래 및 낮 병실

- * 보행 가능한 환자
- * 외래를 방문하여 낮 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자

2. 가정 호스피스

- * 살아온 가정환경에서 돌봄을 받기 원하는 환자
- * 주간병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3. 입원

- * 일반 병원의 병실 분위기와 달리 가정과 같은 분위기 유지
- * 죽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을 중요시
- *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피하고 증상 조절을 통한 편안함에 중점을 둔 돌봄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 구성원〉

의사 2, 간호사 6, 사회복지사 2, 지도신부 1, 약사 1, 봉사자 30, 자문의사 5

〈시설 내용〉

병실 : 1인실 5실, 5인실 1실, 가족실, 정원, 기도실, 테라스, 봉사자실

〈입원 및 등록 안내〉

- * 통증 조절 및 증상완화치료가 필요한 말기환자
- * 주치이나 호스피스 담당자, 가족들이 호스피스 돌봄을 추천하는 분은 담당의사의 소견서와 마지막 검사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하여 등록 한다.

〈회의 및 사별가족 모임〉

- * 호스피스 팀 모임 - 매주 월요일 정기 모임
- * 사별가족 모임 - 봄, 가을 년 2회
- * 30여명의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한 봉사자분들이 영적,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의 역사(略史)

1975년 국제가톨릭 형제회 회원(AFI)들이 주축이 되어 복지관, 의원, 약국을 통합 하여 개설하고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현 금천구) 시흥동 영세민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 하면서 의료사회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출발한 것이 전.진.상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뿌리이며 모태이다.

전.진.상 복지관에서는 무료유치원과 지역아동센터, 장학사업, 재가노인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홀로서기 어려운 분들의 지원체계가 되고 있으며, 생활법을 상담, 가정문제 상담등 제반 가족문제에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전.진.상 약국에서는 지역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복지관 또는 의원에 연계시키고 약국의 이익금을 복지관 후원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등 전.진.상 의원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의료사회복지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전.진.상 의원 설립 초기에는 의원에서 주말 무료 진료만을 행하였으나 차츰 지역 주민들의 의료 문제가 심각해지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1988년 간호사로 일하던 배현정(Marie-Helene)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과정을 마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진료하게 되었고, 1997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미경이 회원으로 합류하여 진료하고 있다.

가정의학과에서 일차 진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2차 진료가 필요할 때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진료과 - 내과(소화기, 순환기, 종양), 방사선과, 비뇨

기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 신경정신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의 전문의들에 의한 자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996년부터 가정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배현정과 정미경이 벨기에와 호주에서 각각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는 한편,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봉사자 심화 교육으로 호스피스 팀이 확보되었다. 2000년부터 낮 병실을 만들어 가정 호스피스만으로 돌봄이 부족한 환자가 낮 병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처치를 받고, 쉬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다. 전.진.상 의원 가정 호스피스는 2006년 이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였으나 입원이 필요한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입원시설을 만들어 2008년 9월 2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를 개설하게 되었다.

